

사회적 대화 2.0, AI 속의민주주의 장이 열립니다!

- 「AI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 개최(5.12)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는 5월 12일(화),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 5월 12일(화) 오전 10:30,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
 - 착수보고회는 통일부차관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동 사업을 수행할 콘소시엄 4개사* 대표가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 * ①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②한국여론리서치 ③사회적협동조합 빠띠 ④(주)아크릴
-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평화와 통일에 관한 AI 속의민주주의 가능성을 실험할 예정이다.
 - 기존 사회적 대화의 속의 방식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참여 규모가 제한되었고, 오프라인 중심 공론화 실행으로 공론화 결과의 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과 활용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통일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 2.0 버전으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일의제의 독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공론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동 사업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모델 설계 △한국형 모델의 구현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한 POC(개념검증) 실시 △사업 평가와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등 크게 세 가지 과업으로 구성된다.
 - 첫째, AI 플랫폼 모델로는 △정통 공론화(분임/전체회의) △1:1 심층 대화 △대규모 참여 공공토의 모델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외사례를 연구하여 한국형 모델을 설계한다.

- 둘째, 한국형 모델에 대한 POC를 설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셋째, 한국형 모델 설계와 POC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시간을 갖고 향후 실제 사회적 대화에 적용할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과제를 모색한다. 학술회의에는 공론화 전문가, 통일정책 전문가, AI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공론화 연구기관 및 운영기관, AI 전문기업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 : 김석호)은 국내 최고 공론화 연구기관으로 공론화 플랫폼 연구 및 설계를 담당하고 전문가 평가회의를 기획한다.
- 한국여론리서치(대표 : 김춘석)는 국가 공론화 사업 최다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으로, AI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및 설문 모듈 개발을 담당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대표 : 권오현)는 국내 유일 시민협력 플랫폼 기관으로 1:1 심층대화 및 공공 토의 설계를 담당한다.
- ㈜아크릴(대표 : 박외진)은 자체 ML/LLM Ops 플랫폼 「조나단」을 기반으로 AI/AX 솔루션을 공급하는 AI 전문기업으로, 본 과제에서 AI 공론화 플랫폼 POC를 설계·개발한다.
- 동 사업은 세계적인 공론화 연구기관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속의 민주주의연구소(Deliberative Democracy Lab)의 자문을 받으며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으로 AI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되면, AI 기술을 통해 디지털 친화적 세대와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여 AI 속의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서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	책임자	팀 장	황선혜 (02-2100-5465)
		담당자	사무관	이한빛 (02-2100-5467)

